요약

선진국들의 경제 회복은 2011 년 4 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고, 세계 경제 전망도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적 경기부양책을 민간 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체로 부진하고, 유로 지역에서는 재정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011 년의 나머지 기간과 2012 년 동안 비록 약세이기는 해도 경제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경기 후퇴가 재개될 위험은 6 개월 전에 비해 높아졌고, 특히 구조적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또한 아시아의 성장도 주로 외부 수요가 감소하여 2011 년 2 분기 이후 완화되었다. 국내 수요는 일반적으로 탄력을 유지해 왔으며, 신용 증가가 여전히 활발하고 인플레이션 탄성도 일반적으로 높아 경기 과열 압력은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음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도 2011–12 년에는 2011 년 4 월에 예측한 것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확장은 국내 수요에 힘입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2011 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험은 분명히 하방으로 기울고 있다. 2011 년 8 월과 9 월에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발생한 주식의 대량 매도는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재개되는 경우 아시아의 거시경제 및 금융에 심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과 지속적인 경기 과열 압력으로 인해 성장에 대한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장기간 동안 완화된 금융 상태가 인플레이션과 수지의 취약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 과열 압력이 비교적 높고 통화 상태가 여전히 경기 순응적인 국가들은 금리 인상과 유연한 환율 운영을 통해서 중립적인 통화 기조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제 II 장).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있고 심한 외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때까지 통화 긴축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재정 상태를 경기 순응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조적 재정 적자가 금융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높다.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2008 년의 세계적 금융 위기에 대응했던 것처럼 현재의 경제 회복 과정을 과거로 되돌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계적인 수요가 취약해지면서 아시아 지역이 국내 수요 소스를 개발하여 성장의 균형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에 추가하여 중요한 기반시설 투자와 사회 우선 지출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 포용적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III 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급성장과 빈곤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 여 년 간 소득 불균형이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 금융 통합을 심화하는 조치들도 금융 이용을 촉진하고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 균형 재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제 IV 장).

아시아 지역의 저소득 국가와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단기 및 중기적인 특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제 V 장). 저소득 국가에서는 강력한 2 차 효과,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필요, 그리고 잘 정착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예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